

대학문화정착을 위한 대학생의 생활문화비교분석

-지방대학 대학생의 통학유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iving Culture of Undergraduate Students for Establishment of University Culture

- Focused on the Commuting Patterns -

조영희 · 조명희 · 심영 · 김대년** · 이경희***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 서원대학교건축학과** ·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강사***

Cho, Young Hee · Cho, Myoung Hee · Shim, Young · Kim, Dae Nyun** · Lee, Kyoung Hee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 Studies & Housing · Department of Architecture** · Seo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iving cultures among three types of undergraduate students, grouped by commuting patterns, attending universities in Chung-Cheong Do: a long-distance type, a short-distance type, and a living-alone type. The survey was performed with questionnaires and the subjects were 1167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a long-distance type, the levels of housing environments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were relatively high, but the students felt constrained by the commuting time. For a short-distance type, the consensus in decision-making with parents and the degree of conflict reconciliation were the lowest. For a living-alone type, the levels of housing environments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were relatively poorer, but the students spent relatively more time at school and the attitudes of school and department which they belong to were relatively higher.

Key words : commuting pattern, a long-distance type, a short-distance type, and a living-alone type

I. 서론

지난 수 십 년간의 경제적 수준의 향상, 자녀 수의 감소, 그리고 교육열의 상승은 대부분의 가정

에서 자녀가 대학교육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다. 이에 최근 우리 나라의 대학진학률은 1995년 이후 50%를 상회할 만큼 높아졌다(통계청, 1996).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Corresponding author : Cho, Young Hee

Tel. 0431)261-8763

* 본 연구는 1998년도 학습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한 것임.

들이 이루고 있는 대학문화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위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문화는 최근 지방대학의 육성이라는 정책과 맞물려 과거와는 달리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타지방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충청권 지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역이 수도권에서 일일 통학거리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지방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서울보다는 지방이 문화적으로나 시설 면에서 열악하다는 이유로 인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문화를 형성하기보다는 학교 수업을 마치는 대로 집으로 빠르게 귀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일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형성한 새로운 문화가 또 다른 하위문화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타지역으로의 대학진학은 등학교 시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시간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지방으로 거주를 옮겨 유학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이들의 가족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더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가족과 동거하는 형태로 학업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유학생들의 급작스러운 환경변화는 더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부모와 따로 지내면서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 부모들의 자녀 통제의 문제라든가, 하숙이나 자취에 소요되는 비용, 교통비 등을 포함한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문제라든가, 학생의 거주환경문제, 낯선 지역사회환경에서의 적응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학생 한 개인의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문화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대학 입학에서 졸업이라는 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을 주기로 반복하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행정부나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느 쪽에서도 학생들의 어려움에 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학의 진학여부에만 집중되어 있고

대학생이 된 이후 변화된 생활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대학생들의 다양한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이 연구에서는 통학유형에 따라 생활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며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점도 다를 것으로 예측된 까닭에 통학유형에 따른 생활문화의 차이와 문제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지방대학 유학생들의 개인적인 대학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자치적 대학문화 육성과 통합되고 조화로운 대학문화 결성을 지지해 줄 지원과 협조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학유형과 대학생 생활문화

대체로 문화를 이해할 때 맥락론자들은 유형론자들과는 달리 거대한 심층구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표층적인 인간행동과 사고에서 나타나는 생활들을 문화로 규정한다(조용하, 1996). 따라서 대학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생활뿐 아니라 그들이 학교 교정을 떠난 이후의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단편들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그들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문화 중에서도 개인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인 생활문화(이기춘 외, 1997)는 실제로 여러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문화의 하위영역을 설정할 때는 문화의 주체가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생활영역을 포괄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의 가치관이나 개인적 성숙,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주거생활의 분리, 경제적 독립 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여기에서는 대학생의 학교 내 생활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공간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가정생활 영역까지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생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소나 가족 관계적 요소들은 자신의 사회관계 발달을 위한 전초가 되며 또한 대학생의 주거·경제·시간 활동들은 그들이 시장경제에서 주요한 소비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과 그들의 시간관리가 앞으로의 그들 생활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문화에 대한 관심은 주로 그들의 대학캠퍼스 내의 문화에만 치중해 있고 일상적인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문화를 통하여 그들의 대학문화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생활문화는 단지 대학생 개인의 삶의 차원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은 사회의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문화는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최근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여유, 지방대육성책과 관련된 지방대학의 신설 및 수용능력의 확충, 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에서 행세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 등으로 대학 진학률은 높아져 지방대학으로의 역 유학이라는 풍속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지방대학의 수용능력이란 것이 학교현장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학생들의 주거의 문제나 대학문화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주변의 모습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아 서울 등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실태는 역 유학하는 하는 학생들의 통학방법에 영향을 미쳐, 공간적으로 이들을 학교소재 지역에 안주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통학형태가 다른 학생들과의 하루일과가 달라지게 되면서 이들이 또 하나의 대학 내 하위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과 생활시간이 다르고, 상호작용하는 준거집단이 다르고, 소비문화가 다르며, 접촉하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학생들이 대학문화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주변에 머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원거리에 부모가 거주하여 학교주변에 자취나 하숙 혹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학생들의 경우보다도 학교 혹은 학교주변의 주거(숙박)시설이나 문화적인 시설 등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학교주변문화가 빈약하거나 건전하게 형성되지 못할 경우 이들이 받는 영향은 적지 않으며, 부모나 사회적인 우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지방대학으로의 진학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대학문화의 개선을 위해 통학형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짚어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면서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대학생의 생활문화 내용

일상생활이란 의식주를 포함한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대학생의 일상생활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학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생활문화의 차이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관심 분야, 연구를 위한 시간적인 한계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생활문화 내용을 생활시간, 개인 및 가족생활, 소비생활, 주거생활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1) 생활시간구조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모습은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생활시간조사는 곧 그 사람의 생활구조 파악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선 개인적인 조건으로서 개인의 노동방법, 생활수단의 질과 양, 가족생활주기, 연령 등을 들 수 있고, 보다 거시적 차원의 요인으로는 지리적 조건이나 기후, 종교 등 다양한 것들을 들 수 있다(문숙재, 1996).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대학생의 경우 다른 인구특성집단과는 다른 생활시간구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생들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시간분류체계에 의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조사는 거의 전무한 실태이고, 단지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하는 국민생활시간조사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방송공사, 1996).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생이란 생산적인 노동으로부터 아직은 자유롭고, 부모로부터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구특성집단보다도 시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대학생은 시간관리상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집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대학생의 생활시간이 생활시간조사연구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보이고 있다. 졸업후의 취업이 과거보다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배운 것 외에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외의 학습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지방대학에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위의 요인들은 대학생들이 시간적인 제약에서 예외적이라는 생각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거리 통학의 경우는 과외의 학습과는 달리 시간적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시간제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생활시간조사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시간이라는 것의 특성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다른 활동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학교라는 공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은 대학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의 생활시간조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통학유형별 대학생들의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우선은 대학생이라는 집단이 다른 인구특성집단과 생활시

간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며, 둘째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대학생 집단 내에서도 통학유형별로 대학생들의 생활시간사용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일상적 생활모습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밖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둬도 불구하고 다른 일상생활영역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통학유형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구조 측면에서는 학교생활시간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시간구조를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개인·가족생활 실태

대학생 시기의 정체감 형성의 문제는 특히 Erikson(1963)의 인생주기 8단계의 중요한 발달과제로 청년초기보다는 청년후기의 발달과업이다. 그는 자아정체감을 정체감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를 심리·사회적 정체감이라 하고, 후자를 개별적 정체감이라고 하였다. 심리·사회적 정체감이란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 내지는 일체감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개별적 정체감이란 개인이 집단 내에서도 타인과는 다른 고유한 존재로서 갖게 되는 정체의식이다 또한 청년기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여 생리적으로는 성욕이나 활동욕, 사회적으로는 애정, 우월, 독립하려는 욕구 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장병림, 1980). 이러한 성적동기는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호르몬이나 내적 작용의 결과라기 보다는 문화적 학습에 더 많이 의존하며 개인 혼자만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사회적 욕구이다(정동철, 1978; 장순복 외, 1992). 그러한 까닭에 청년기의 성문화는 그들이 놓여진 환경적 맥락과 하위 집단 성문화에 일치하는 성 관념 및 태도를 형성하기 쉽다. 따라서 성에 대한 의식이나 행동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 유지, 발전되는 것으로서 성 주체자의 하위 집단에 따라,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청년기는 어린시절부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어 온 기존의 가치관이나 도

덕물이 많은 도전을 받는 시기이다. 즉 대인관계가 확장되고 새로운 세계에 접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가치관과 모순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서 청년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중 특히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경험하며 가족가치관에 있어 부모의 사고방식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기성사회의 가치관과 모순·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가족관계상에서도 기존과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기까지는 부모의 영향 아래서 지내게 되는데, 현대가족에서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이다. 즉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하기까지는 평등이나 독립성을 내세울 수 없는 데, 현대 교육은 개개인에게 자유의사의 표시, 개성존중 및 평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러한 결과 사회적으로 독립이 안된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반항·불만·갈등을 표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부모와 자녀는 가족 내의 위치가 서로 다르고 세대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원만하지 못한 부모자녀관계는 부정적인 인성형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사회적 독립에 있어서도 장애 요인이 된다.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첩경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인데, 이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요구되는데, 분거 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제한을 받는 경우 오히려 자녀를 독립적으로 이끈다고 하는 연구결과(차승은·한경혜, 1999)도 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 성적 의식 및 행동, 가족 및 사회적 가치관 등이 부모와의 동거여부, 접촉 양식, 독립된 생활 경험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학유형별 부모자녀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대두된다.

3) 소비·주거생활실태

현대 소비사회의 특징은 지속적인 소비욕구의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극은 다음의 두 가지 점으로부터 형성되어진다고 본다(이상률, 1992, 1996). 첫째, 집단에의 소속감 혹은 동일시

의 논리이다. 이 논리는 또래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소비행동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소속감을 얻고자하는 심리적 욕구에 호소하여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한 소비욕구는 그 집단에서 이끌고 있는 특정 소비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라 하겠다. 둘째, 차별화의 논리, 즉 차이에의 욕구에 호소함으로써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한 소비욕구는 소비상품 그 자체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차이에 대한 욕구, 즉 타인과 차별화된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욕구와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대학생이라는 특정 집단의 소비생활 문화가 어떠한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어진 경제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소비하는 사람의 이러한 욕구들을 반영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생활문화를 파악하는데 그들의 경제적 소비지출행동 영역을 빼놓을 수 없다.

주거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환경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거규범과 현재의 주거상황, 그리고 제반 여건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된다(Winter, 1978). 거주자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주거생활 모습에는 소속된 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집까지의 거리로 인하여 기존의 주거환경을 떠나 생활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의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 대학의 기숙사는 프라이버시 유지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질적 수준(안옥희·임소연·권오정, 1997)이나 수요공급 차원에서의 수준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미흡한 실정(장성준, 1992)에 있다. 대학생의 주거환경의 실태가 통학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대학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통학유

형별 생활문화의 차이를 생활시간구조, 개인·가족생활, 소비·주거생활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생활시간구조는 통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 개인·가족생활 실태는 통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소비·주거생활실태는 통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통하여 각 통학유형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중부권 지방대학의 통합된 문화형성을 위한 교육정책, 학교 당국, 지역 사회의 지원적 협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통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생활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조사로서,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일일 통학가능거리로 간주되는 충청도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생활문화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통학유형을 다음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학교소재지 및 그 근거리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소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경우 그리고 학교소재지에서 자취나 하숙 또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의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유형을 근거리부모 동거형, 원거리부모 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으로 명명하고, 조사대상은 본 연구취지에 근거하여 충청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단 표집에 있어서 앞의 세 유형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표집설계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1999년 5월 12일부터 6월 15일 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는 대학생 12명을 조사원으로 충청지역에 있는 6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125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중 1184부를 회수하였으나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167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설정된 각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빈도분포 및 백분율,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 α)를 이용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기 기입식 질문지로, 대학생의 일상적 생활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생활구조, 개인·가족생활실태, 주거·소비생활실태를 측정하는 문항과 대학생 및 그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대학생 생활시간구조의 파악을 위한 문항은 기본적인 생활시간구조, 등학교 시간 및 수업시간표 작성 기준, 활동영역 시간에 대한 시간제약, 피로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생활시간구조는 각 활동과 관련된 시각 혹은 시간을 적도록 하였으며, 활동영역에 대한 시간제약 및 피로도 문항의 응답은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적을수록 시간제약 혹은 피로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개인생활문화는 개인의 자아정체감(개별적 자아정체감,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속감), 성의식 및 행동, 사회적 가치관을 포함한다. 개인의 개별적 자아정체감은 노월애(1991), 박아청(1995)의 척도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가치관확립, 사회적 적응력 요인, 자기수용, 미래 계획,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하위영역별 4문항 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전체적인 신뢰도(Cronbach α)는 .85이었다.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 친구나 선·후배와의 친밀감 정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 학과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 학과 일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전체적인 신뢰도(Cronbach α)는 .79이었다. 성의식 및 성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적 개방성의 정도와 성교유무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오락·스포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생활실태는 가족가치관,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다. 가족가치관은 가족관계의 중요도 인식과 부모자녀간의 권한을 묻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자녀의사결정에 대한 동의정도, 자녀의 성적문제통제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친밀도, 갈등정도, 부모에게서의 심리적 독립정도, 의사소통만족도를 묻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자녀관계를 묻는 문항은 3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의 정도가 좋은 것을 나타낸다.

소비지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용돈과 기타 용돈은 실질적인 명목 금액으로 조사하였고 소비지출 비목은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비지출 비목의 중요도는 12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주거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부모집에 대한 주거환경과 주거과밀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에 속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집 이외에 통학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부모집의 주거환경 실태에 관련된 내용은 주거소유형태, 주거유형, 주거규모, 방수, 사용하는 방의 크기, 주거설비 등 11문항이며, 주거과밀 실태에 관한 내용은 동거가구수, 가

족이 사용하는 방의 수, 대학생이 사용하는 방의 동거인수, 욕실의 수 등 6문항이다. 통학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내용은 주거소유형태, 주거유형, 주거규모, 주거설비, 동거가구수, 사용하는 방의 크기, 사용하는 방의 동거인수, 욕실의 수 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V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학년의 분포를 보면 2, 3학년이 조사대상의 거의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통학의 유형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학유형이 정착된 2, 3학년 학생들로부터 응답을 얻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1학년의 경우 아직은 통학유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인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4학년의 경우 학교생활보다는 취업준비 등과 관련하여 통학유형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2, 3학년이 조사대상으로 더 적절하다는 연구원들의 판단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학년	1학년	37(3.2)	성별	남 여	524(44.9) 643(55.1)
	2학년	721(61.8)			
	3학년	381(32.6)			
	4학년	28(2.4)			
	계	1167(100.0)		계	1167(100.0)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40(3.5)	계층 귀속의식	상류층 중상류층 중류층 중하류층 하류층	15(1.3) 206(17.7) 792(67.9) 136(11.7) 17(1.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96(34.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50(39.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08(18.0)			
	500만원 이상	59(5.1)			
	계	1167(100.0)		계	1167(100.0)

(표 2) 통학유형별 빈도 및 백분율

빈도(%)

원거리부모동거형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373(33.4)	361(32.3)	384(34.3)

에 기초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녀학생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사대상 대학생의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분포(39.0%)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의 분포(34.3%)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족의 계층귀속의식을 보면 중류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67.9%), 중하류층 이하의 경우는 대략 13%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통학유형의 구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통학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현재 부모(혹은 가족)와의 동거여부, 학교와 주중 주거지와의 물리적 거리 및 통학소요시간을 준거로 하였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부모동거형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부모동거형에 대해 왕복통학시간 90분, 물리적인 거리 50km를 기준으로 원거리부모동거형과 근거리부모동거형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통학유형은 원거리부모동거형,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표집된 각 유형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2. 대학생의 생활시간구조

대학생의 생활시간구조는 통학유형별로 기본적인 생활시간구조가 어떻게 다르며, 또한 통학유형이 학교 수업시간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통학유형별 기본적 생활시간구조

대학생의 기본적 생활시간구조를 본 연구에서는 아침기상시각과 저녁취침시각, 등교시각과 귀가시각, 통학소요시간 그리고 학교에 머무는 시간 등으로 파악하였으며, 그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일수도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우선 대학생들의 생활시간에서 통학유형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침기상시각과 저녁취침시각을 주중(등교일)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학유형에 관계없이 아침기상시각은 주중과 주말간에 큰 차이가 있으나 저녁취침시각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아침기상시각의 경우 주중(6,7시 대)과 주말(9시 대)간의 차이가 거의 두세 시간이 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저녁취침시각의 경우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24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주중의 수면시간은 6-7시간 정도 되는데 반해 주말에는 9시간 정도 된다. 이것은 일반 대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평일 7시간 22분, 주말 8시간 19분과 비교하면(한국방송공사, 1996), 주중의 수면시간은 조사대상 중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적은 편이고, 주말의 경우 오히려 본 연구의 조사대상들이 더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성인(평일은 7시간 30~40분, 주말은 8시간 40분 정도)과 비교해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다.

통학유형별로 아침기상시각을 보면, 주중에 있어서 세 유형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원거리부모동거형의 경우 다른 두 통학유형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일어나고 있고,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가장 늦게 일어난다. 그러나 주말에는 오히려 근거리부모동거형이 일찍 일어나고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늦게 일어난다. 여기에는 주중 통학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 및 심리적인 피로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통학유형별 저녁취침시각을 보면 세 유형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데, 주중에는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늦게 자고, 주말에는 원거리부모동거형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보다 늦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상의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원거리부모동거형이

〈표 3〉 통학유형별 대학생의 기본적 생활시간구조

변 수		통학유형	원거리부모동거형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F값
		평균				
아침기상시(시)	주중	평균	6.31	7.37	7.87	284.879***
		DMR	c	b	a	
	주말	평균	9.36	9.18	9.46	3.077*
		DMR	ab	b	a	
저녁취침시(시)	주중	평균	24.43	24.57	25.02	28.993***
		DMR	b	a	a	
	주말	평균	25.19	24.94	25.32	6.633***
		DMR	b	a	b	
등교시각(시)		평균	7.26	8.56	9.00	238.450***
		DMR	c	b	a	
귀가시각(시)		평균	20.97	20.99	20.38	5.903**
		DMR	ab	a	b	
통학소요시간(분)		평균	185.18	55.02	25.62	946.794***
		DMR	a	b	c	
학교에머무는시간(시간)		평균	9.07	9.97	9.80	15.594***
		DMR	b	a	a	
등교일수(일)		평균	4.49	4.76	4.71	9.342***
		DMR	b	a	a	

* p< .05 : ** p< .01 : *** p< .001

다른 두 유형보다 주중 1일 수면시간이 3,40분 정도 적은 셈이다.

아침기상시각과 등교시각간의 차이를 보면 대략 1시간 내외를 보인다. 이것은 주로 생리적 시간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생각된다. 등교시각은 세 유형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원거리부모동거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1시간 30분 가량 빠르다. 그런 반면에 귀가시각은 통학유형별 차이는 있지만 등교시각과 비교할 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오후 10시 30분 전후에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원거리부모동거형은 이른 등교시각으로 인해 다른 두 유형과 주중에는 다른 생활시간구조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근거리부모동거형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간에는 주중 기본적인 생활시간구조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학방법은 대학생들의 생활시간구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대학생들의 주중 기본적인 생활시간구조를 통해서 보면, 원거리부모동거형의 경우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10시간 15분 정도이며 그중 6시간 정도는 수면시간, 통학시간이 3시간 정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9시간 정도, 그 외의 활동에 1시간 45분을 쓰고 있다. 근거리부모동거형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11시간 30분 정도이며 그중 수면시간은 6시간 50분 정도, 통학시간은 55분 정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10시간 정도, 그 외의 활동에 1시간 30분 정도를 쓰고 있다.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12시간 40분 정도이며 그중 수면시간은 6시간 40분 정도이며, 통학시간이 25분 정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9시간 50분 정도이며, 1시간 정도를 그 외의 활동에 쓰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원거리부모동거형이 통학시간에 사용되는 시간의 양만큼을 다른 두 유형은 수면시간과 학교에 머무는 시간에 배분됨을 알 수 있다. 즉 원

거리부모동거형의 경우 이 두 측면에서 시간제약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것은 가사노동이라든지 기숙사의 점점시간과 관계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기타 활동시간의 양이 30분 정도 적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원거리부모동거형의 과다한 통학시간은 대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실제 학생들의 피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학유형에 따라 신체적 피로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별로 볼 때 원거리 부모동거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피로가 큰 것으로 응답했다.

이상의 통학소요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등교일수 등 통학유형별 다른 생활시간구조는 단순히 생활시간구조의 차이만을 가져오기보다는 학습과 관련된 수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수업시간표 작성기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교시간 및 학교

시간의 실태, 수업시간표 작성기준은 통학유형과 연관함을 알 수 있다.

등교시간의 경우 원거리부모동거형은 수업에 관계없이 일찍 등교하는 반면 다른 두 유형은 첫 수업에 맞추어 등교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하교시간의 경우에는 원거리부모동거형의 경우 학교수업이 끝난 직후 학교를 떠나는 반면 근거리부모동거형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이거나 밤늦게 학교를 떠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원거리부모동거형은 아침 시간대에 여유시간이 있는 편이며, 다른 두 유형은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에 여유시간이 있는 셈이다. 이것은 원거리부모동거형의 경우 통학수단의 비탄력적인 배차시간의 제한을 받고 또 귀가 소요시간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 더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학유형은 학생들의 공유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어울릴 수 있는 집단을 구분시키고 있다. 대학문화에서 과외의 다양한 교내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과학습 못지 않게

<표 4> 통학유형별 대학생 등하교 시간 및 수업시간표 작성 기준

변 수		통학유형	원거리	근거리	자취·하숙·	계
			부모동거형	부모동거형	기숙사	
등교시간	수업에 관계없이 일찍 등교		111(29.8)	80(22.2)	77(20.1)	268(24.0)
	첫수업에 맞추어 등교		262(70.2)	281(77.8)	307(79.9)	850(76.0)
	계		373(100.0)	361(100.0)	384(100.0)	1118(100.0)
	$\chi^2 = 10.74^* \text{ df} = 2$					
하교시간	수업 끝난 직후 하교		131(35.5)	55(15.5)	82(21.5)	268(24.2)
	수업 끝난 뒤 조금 머무른 후 하교		197(53.4)	215(60.0)	212(55.8)	624(56.4)
	밤 늦게		41(11.1)	85(23.9)	88(23.0)	214(19.3)
	계		368(100.0)	355(100.0)	382(100.0)	1106(100.0)
	$\chi^2 = 52.97^{***} \text{ df} = 4$					
수업시간표 작성기준	요일을 정하고 시간표 작성		212(59.2)	137(43.8)	139(40.1)	488(47.9)
	원하는 과목에 따라 시간표 작성		146(40.8)	176(56.2)	208(59.9)	530(52.1)
	계		358(100.0)	313(100.0)	347(100.0)	1018(100.0)
	$\chi^2 = 29.06^{***} \text{ df} = 2$					

* p<.05 : *** p<.001

1) 대학생의 통학에 따른 정신적 피로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정도로, 통학유형별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신체적 피로의 경우는 원거리부모동거형은 '약간 피로하다'를, 다른 두 유형은 '보통이다'를 나타냄으로써 통학유형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의미가 크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원거리부모 동거형은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됨으로써 대학중심문화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수업시간표의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등교할 요일을 정하고 시간표를 작성하는 비율이 거의 반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통학유형별로는 특히 원거리부모동거형이 요일을 정하고 시간표를 정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다른 두 유형은 요일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따라 수강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거리부모동거형이 대학생활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강의수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교과를 정말 수강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등교하기로 한 날에 개설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통학유형별 대학생의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본 결과 원거리부모동거형과 근거리부모동거형 및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생활시간사용에 있어서 원거리부모동거형은 과도한 통학소요시간과 통학시간의 비탄력성이 주원인이 되어 아침기상시간, 수면시간, 등교시간, 하교시간, 학교에 머무는 시간, 등교일수, 수업시간표 작성기준 등에서 다른 두 유형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3. 개인·가족생활실태

1) 개별적 자아정체감

조사대상 대학생의 통학유형 별 개별적 자아정

체감은 다음 <표 5>와 같다. 이 결과에 따르면, 통학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개별적 자아정체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통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생활문화의 차이는 자아정체감에서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와의 동거여부, 학교생활의 차이, 생활시간 배분의 차이 등과 같은 요소들은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과는 그리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는 개인의 성별이나 성격, 가족환경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요소들과 더 많은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와 같이 통학유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추측된다.

2)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속감

조사대상 대학생의 통학유형 별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속감은 <표 5>와 같다. 이 결과에 따르면, 통학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속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분석을 통한 집단 별 차이를 보면, 원거리 부모동거형과 근거리 부모동거형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부모동거형 간에는 차이가 없으며, 원거리부모동거형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근거리나 원거리 모두 집에서 부모와 동거하며 통학하는 학생 집단보다는 학교기숙사나 학교 근처에서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의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시간구조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에서 생활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자취·하숙생이나 기숙사생이 학과 및 학교 일에 참여할 시간

<표 5> 통학유형별 자아정체감

변 수		통학유형			F값
		원거리부모동거형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개별적 자아정체감	평균	62.23	61.52	61.58	1.637
	DMR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속감	평균	10.17	10.41	10.83	6.859***
	DMR	b	b	a	

*** p< .001

적 여유가 훨씬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 봐야 할 점은 통학시간에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유형은 단지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거리부모동거형도 학교에 등교하는 일수나 시간에서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때, 학과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두 유형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취·하숙·기숙사 주거형 집단이 개인적인 시간이 여유롭고 이러한 여유 시간을 학교나 학과에 더 투자하여 다른 어느 통학유형보다도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성의식 및 행동

조사대상 대학생의 통학유형 별 성의식 및 성행동은 다음 <표 6>과 같다. 이 결과에 따르면, 통학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성의식에는 차이가 없으나 성행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응답자의 혼전성관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안된다는 비율(50.5%)이 남녀 모두 된다(40.8%)는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관계 금기에 관한 수치는 서울에서의 한 연구(연세대학교 학생상당소, 1996)의 응답결과인 '해서는 안된다(24.2%)'의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써, 이러한 차이가 조

사시기의 차이에서인지, 대학 소재지가 서울과 지방에 의한 차이인지 혹은 대학의 분위기 때문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점은 어느 유형에서나 혼전 성관계를 '남자가 가지면 안된다'라는 응답에서는 원거리 부모동거형(.3), 근거리 부모동거형(.6),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1.0)의 세 유형 모두에서 거의 극소수의 응답자만이 '그렇다'라고 한 점이다. 전체적인 응답에서 '둘 다 안된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은 것과 여성과 남성에게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는 응답의 전체적인 경향이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성관계 유무에 관한 질문에서는 통학유형 별 차이를 보였다. 성관계를 실제로 경험한 집단은 근거리 부모동거형에 비해 원거리 통학형이나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에서 더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성의식은 비교적 어느 통학유형에서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나, 실제 성경험 여부에서는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집단이 더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어느 정도 대학생의 성경험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의 성의식은 부모의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대학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실제 성적 행위 여부에서는 부모와의

<표 6> 통학유형별 성의식 및 행동

빈도(%)

변 수	통학유형	원거리 부모동거형	근거리 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계
	혼전성관계	둘다 안된다	172(46.7)	192(54.2)	193(50.5)
남자 안된다		1(.3)	2(.6)	4(1.0)	7(.6)
여자 안된다		40(10.9)	23(6.5)	27(7.1)	90(8.2)
둘다 된다		155(42.1)	137(38.7)	158(41.4)	450(40.8)
계		368(100)	354(100)	382(100)	1104(100)
$\chi^2 = 9.47$ df = 6 N. S.					
성 교	유	61(17.0)	41(11.8)	72(19.2)	174(16.1)
	무	297(83.0)	306(88.2)	303(80.8)	906(83.9)
	계	358(100)	347(100)	375(100)	1080(83.9)
	$\chi^2 = 7.613^*$ df = 2				

* p < .05

동거여부에 의해 어느 정도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성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의식과 성행동 여부에만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사회적 가치관

조사대상 대학생의 통학유형 별 사회적 가치관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문제에서는 차이가 없고 단지 문화·오락·스포츠 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통학유형 집단 간 문화·오락·스포츠에서의 차이를 보면 원거리부모동거형 집단이 다른 두 집단인 근거리부모동거형이나 자취·하숙·기숙사형 집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거리부모동거형의 주거지가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편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²⁾, 서울에 모든 문화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 부합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충청의 지방 대학에 역유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학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다른 개인적 문화활동은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생활상의 차이가 사회적 관심의 차이에도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는 이 응답에 대한 조사 대학생들 응답의 전체적인 양상은 지난 7·80년대 청소년 및 대학생의 의식조사(국무총리 기획조정실, 1979; 청소년대책위원회, 1984)에서 응답자들이 상당히 개인적인 가치관만을 나타낸 것과 크게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사회적 관심보다는 직업준비, 학업준비 등의 개인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인 탓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개인 청소년들의 가치관 확립시기에 자신을 벗어나 좀 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외적 자극이 부족한 것과 7·80년대 지식인 집단으로 대변되던 대학생 문화가 90년대 이후 대학생의 증가로 인해 점점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성격으로 변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 가족가치관

조사대상 대학생의 통학유형별 가족가치관은 <표 8>과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통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관계중요도인식에서 부모자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가족가치관이 부계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또 부모자녀간의 권한도 통학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원거리부모동거형과 자취·하숙·기숙사거주형이 근거리부모동거형보다 평등하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근거리부모동거형은 부모와의 잦은 접촉속에서 부모의 보호와 간섭 등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어 느끼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6) 부모자녀관계

조사대상 대학생의 통학유형별 부모자녀관계는 <표 9>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통학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부모와의 관계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통학유형에 따른 문화·오락 스포츠 관심

변 수	통학유형	평균	F값	DMR
문화·오락·스포츠	원거리부모동거형	4.32	3.387*	a
	근거리부모동거형	4.17		b
	자취·하숙·기숙사	4.16		b

* p < .05

2) 원거리 통학생의 주거지를 살펴보면, 서울이 57.0%로 가장 많고 그 외 경기·충청 지역이 33.2%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근린 지역이 다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통학유형별 가족가치관

빈도(%)

가족가치관		통학유형	원거리 부모동거형	근거리 부모동거형	자취·하숙· 기숙사	전 체
가족관계 중요도 인식	부부관계		117 (34.4)	113 (34.2)	121 (33.6)	351 (34.1)
	부모자녀관계		211 (62.1)	194 (58.8)	214 (59.4)	619 (60.1)
	형제자매관계		12 (3.5)	23 (7.0)	25 (6.9)	60 (5.8)
	계		340 (100.0)	330 (100.0)	360 (100.0)	1030 (100.0)
	$\chi^2 = 4.967 \text{ df} = 4 \text{ ns}$					
부모자녀간의 권한	부모에게 권한		162(43.9)	180(51.0)	169(44.4)	511(46.3)
	부모자녀평등		196(53.1)	161(45.6)	195(51.2)	552(50.0)
	자녀에게 권한		11(3.0)	12(3.4)	17(4.5)	40(3.6)
	계		369(100.0)	353(100.0)	381(100.0)	1103(100.0)
	$\chi^2 = 5.834 \text{ df} = 4 \text{ ns}$					

〈표 9〉 통학유형별 부모자녀관계

구 분		통학유형	원거리 부모동거형	근거리 부모동거형	자취·하숙· 기숙사	F값
父 와 의 관 계	의사결정동의	평 균	2.520	2.438	2.543	3.107*
		DMR	ab	b	a	
	성적문제 통제신뢰	평 균	2.674	2.598	2.615	1.686
		DMR				
	친 밀 도	평 균	2.101	2.149	2.240	4.322*
		DMR	b	ab	a	
	갈 등 감소정도	평 균	2.142	2.135	2.262	4.037*
		DMR	b	b	a	
	심리적 독립	평 균	2.237	2.138	2.255	2.942*
		DMR	ab	b	a	
	의사소통 만족	평 균	2.114	2.103	2.133	.193
		DMR				
母 와 의 관 계	의사결정동의	평 균	2.662	2.587	2.690	3.845*
		DMR	a	b	a	
	성적문제 통제신뢰	평 균	2.690	2.643	2.660	.663
		DMR				
	친 밀 도	평 균	2.312	2.315	2.354	.591
		DMR				
	갈 등 감소정도	평 균	2.231	2.236	2.355	4.450*
		DMR	b	b	a	
	심리적 독립	평 균	2.271	2.198	2.364	5.626**
		DMR	b	b	a	
	의사소통 만족	평 균	2.371	2.348	2.408	.922
		DMR				

* $p < .05$; ** $p < .01$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사결정동의정도, 친밀도, 갈등감소정도, 심리적 독립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근거리 부모동거형보다 아버지의 의사결정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원거리부모동거형보다 친밀도가 높았으며,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원거리·근거리부모동거형보다 갈등이 줄어든 정도가 높았고 심리적 독립의 정도도 근거리형보다 높았다. 즉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아버지의 관계가 가장 원만하고 보다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학유형에 따라 의사결정동의 정도, 갈등감소 정도, 심리적 독립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과 원거리부모동거형이 근거리부모동거형보다 어머니의 의사결정동의정도가 높았으며,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원거리형·근거리부모동거형보다 갈등감소 정도가 높았으며, 심리적 독립의 정도도 높았다. 즉 어머니의 관계도 아버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가장 원만함을 나타내고 있고 보다 독립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 상호작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더 관계가 좋고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분가 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제한을 받는 경우 오히려 자녀를 독립적으로 이끈다는 연구결과(차승은·한경혜, 1999)와 일치한다.

3. 소비·주거생활실태

1) 소비지출 실태

여기에서는 먼저 소비지출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를 필요로 되는 금전 자원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표 10>은 통학 유형별 대학생의 금전 자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금전 자원은 용돈, 기타 용돈, 생활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용돈과 기타 용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통학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용돈의 차이를 살펴보면, 원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이 용돈이 가장 많았으며,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대학생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근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이 가장 용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원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은 우선 교통비에서 다른 통학유형들보다 비용이 많이 들것이며,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은 식생활과 주생활을 위한 비용을 자신의 용돈 혹은 용돈을 포함하는 생활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더 많은 금전 자원을 부모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기타 용돈의 경우도 용돈과 같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이 가장 많이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근거리 대학생에 비해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은 기타 용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통학 유형별 소비지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11> 참조), 식비, 광열비, 교양·오락·교제비, 교통비, 통신비, 잡비에 대해 통학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01$)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의류 및 신발비, 보건위생비, 책값·학용품비, 학원비에 대해서는 통학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통학 유형별 용돈의 차이분석

통학 유형		원거리부모동거형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F값
용돈	평균	277,935.66	192,722.22	248,595.36	34.568***
	DMR	a	c	b	
기타 용돈	평균	86,370.57	63,463.79	68,414.95	5.841**
	DMR	a	b	b	

** $p < .01$; *** $p < .001$

〈표 11〉 통학유형별 소비지출의 차이분석

비 목		통학유형			F값
		원거리부모동거형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식 비	평균	74,579.02	68,613.45	89,873.57	14.775***
	DMR	b	b	a	
광열·수도비	평균	0	0	9,287.01	88.759***
	DMR	b	b	a	
교양·오락 교제비	평균	74,604.34	56,922.32	71,398.96	9.378***
	DMR	a	b	a	
교 통 비	평균	110,660.00	38,172.75	32,461.14	231.272***
	DMR	a	b	b	
통 신 비	평균	28,253.78	18,937.25	27,288.55	11.519***
	DMR	a	b	a	
기타 잡비	평균	30,570.65	27,998.59	42,729.87	7.013***
	DMR	b	b	a	

*** p<.001

〈표 12〉 통학유형별 소비지출 비목의 중요도

빈도(%)

비 목		통학유형			전 체
		원거리부모동거형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줄일 수 없음	식 비	85 (27.8)	99 (32.4)	122 (39.9)	306 (27.8)
	의류·신발비	17 (33.3)	14 (27.5)	20 (39.2)	51 (4.6)
	광열·수도비	0 (0.0)	0 (0. 0)	11 (100.0)	18 (1.0)
	교양·오락비	27 (37.5)	25 (34.7)	20 (27.8)	72 (6.6)
	교제비	36 (33.0)	29 (26.6)	44 (40.4)	109 (9.9)
	학원비	4 (14.3)	16 (57.1)	8 (28.6)	28 (2.5)
	책·화용품비	40 (26.3)	40 (26.3)	72 (47.4)	152 (13.8)
	교통비	142 (47.8)	107 (6. 0)	48 (16.2)	297 (27.0)
	통신비	13 (31.0)	13 (31.0)	16 (38.1)	42 (3.8)
	보건위생비	0 (0.0)	3 (33.3)	6 (66.7)	9 (.8)
	기타 잡비	1 (20.0)	2 (40.0)	2 (40.0)	5 (.5)
	없 음	1 (5.9)	6 (35.3)	10 (58.8)	17 (1.5)
	소 계	366 (33.3)	354 (32.2)	379 (34.5)	1099(100.0)
$\chi^2 = 112.694^{***}$ df = 22					
우선 지출	식 비	103 (25.0)	133 (32.3)	176 (42.7)	412 (37.4)
	의류·신발비	24 (28.9)	33 (39.8)	26 (31.3)	83 (7.5)
	광열·수도비	0 (0.0)	0 (0.0)	3(100.0)	3 (.3)
	교양·오락비	33 (38.8)	25 (29.4)	27 (31.8)	85 (7.7)
	교제비	42 (36.2)	27 (23.3)	47 (40.5)	116 (10.5)
	학원비	2 (14.3)	8 (57.1)	4 (28.6)	14 (1.3)
	책·화용품비	25 (22.3)	37 (33.0)	50 (44.6)	112 (10.2)
	교통비	121 (56.1)	70 (32.7)	23 (10.7)	214 (19.4)
	통신비	14 (31.8)	16 (36.4)	14 (31.8)	44 (4.0)
	보건위생비	1 (33.3)	2 (66.7)	0 (0.0)	3 (.3)
	기타 잡비	2 (22.2)	3 (33.3)	4 (44.4)	9 (.8)
	없 음	0 (0.0)	3 (42.9)	4 (57.1)	7 (.6)
	소 계	367 (33.3)	357 (32.4)	379 (34.3)	1102(100.0)
$\chi^2 = 118.478^{***}$ df = 22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비, 광열·수도비, 기타 잡비의 경우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이 원거리부모동거형이나 근거리부모동거형보다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은 식생활과 주생활을 자신의 금전 자원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교양·오락·교제비와 통신비의 경우, 원거리부모동거형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대학생이 근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보다 이 부분에서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이나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은 근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보다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따라서 부모와의 연락이 더 빈번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통신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되며, 교양·오락·교제비의 경우는 원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은 수도권 지역의 문화적 시설들에 좀더 접근이 용이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은 방과후 시간을 더 많이 친구들과 보내는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교통비는 원거리부모동거형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대학생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거나 대학 내에 있는 기숙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통학유형들보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여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잡비는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이 원거리부모동거형이나 근거리부모동거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 유형별로 소비지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돈이 부족하더라도 줄일 수 없는 지출 비목(줄일 수 없음)과 돈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지출 비목(우선 지출)에 관하여 질문하고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돈이 부족하더라도 줄일 수 없는 지출 비목(줄일 수 없음)과 돈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목(우선 지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이 부족하더라도 줄일 수 없는 비목은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은 식비, 광열·수도비, 교제비, 책값·학용품비, 보건위생비, 근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은 학원비, 교통비, 기타 잡비, 원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은 교통비의 지출 비목을 지적하였다. 우선 지출에 대해서는 원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은 교통비를, 근거리부모동거형은 학원비와 보건위생비를,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은 식비, 광열·수도비, 교제비, 책값·학용품비, 기타 잡비를 지적하였다.

줄일 수 없는 지출 비목과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지출 비목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그 긴요도가 높은 지출 비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자취·하숙·기숙사형 대학생은 주로 생리적,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비목에 스스로 지출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생활모습을, 근거리부모동거형은 자취·하숙·기숙사형이나 원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과는 달리 부모와 동거하므로 그러한 생리적, 기본적 욕구는 부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이며, 그것을 제외한 다른 비목들에 우선권을 두고 스스로의 용돈을 지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원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은 학교를 매일 통학해야 하므로 그 어떤 비목보다 교통비가 그 긴요도가 높은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통학 유형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자취·하숙·기숙사형이나 원거리부모동거형 대학생이 이상에서 보여준 우선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목들에 그들의 용돈의 상당부분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균형잡힌 소비지출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지출생활에 있어서 그 만족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주거환경 실태와 주거과밀 실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전체의 주거환경 수준은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88.4%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주거유형은 집합주택인 아파트(45.3%)와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17.7%)이 63.0%로서 단독주택(37.1%)에 비해서 많다. 주거규모는 30-39평이 52.6%로 가장 많고 다음이 29평 이하(31.5%), 40평 이상(15.8%)의 순이며, 방(거실과 부엌 제외)은 3개인 경우가

<표 13> 조사대상자 전체의 통학유형별 주거환경 실태 빈도 (%)

주거환경특성		통학유형	원거리 부모동거형	근거리 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계
주택소유 형태	타가(他家)		29 (7.8)	41 (11.4)	60 (15.5)	130 (11.6)
	자가(自家)		344 (92.2)	320 (88.6)	327 (84.5)	991 (88.4)
	계		373(100.0)	361(100.0)	387 (100.0)	1121(100.0)
$\chi^2 = 11.10^{**}$ df=2						
주거유형	다가구/연립/다세대		65 (17.4)	49 (13.6)	84 (21.7)	198 (17.7)
	아파트		197 (52.8)	172 (47.8)	138 (35.7)	507 (45.3)
	단독주택		111 (29.8)	139 (38.6)	165 (42.6)	415 (37.1)
	계		373(100.0)	360(100.0)	387 (100.0)	1120(100.0)
$\chi^2 = 28.87^{***}$ df=4						
주거규모	29평 이하		86 (23.2)	128 (35.6)	138 (35.8)	352 (31.5)
	30 - 39평		226 (60.9)	181 (50.3)	181 (46.9)	588 (52.6)
	40평 이상		59 (15.9)	51 (14.2)	67 (17.3)	177 (15.8)
	계		371(100.0)	360 (100.0)	386 (100.0)	1117(100.0)
$\chi^2 = 21.07^{***}$ df=4						
방의 수	2개 이하		16 (4.3)	28 (7.8)	55 (14.2)	99 (8.8)
	3 개		203 (54.4)	221 (61.2)	202 (52.2)	626 (55.8)
	4개 이상		154 (41.3)	112 (31.0)	130 (33.6)	396 (35.3)
	계		373(100.0)	361(100.0)	387 (100.0)	1121 (100.0)
$\chi^2 = 30.77^{***}$ df=4						

p< .01 : *p< .001

가장 많고(55.8%), 다음으로 4개 이상(35.3%), 2개 이하(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하는 방의 크기는 6평 이상(44.4%)과 4-5평(43.0%)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87% 이상이 4평 이상이며, 욕실이 2개 이상인 경우가 43.3%이었다. 이로써 주거환경 수준은 대학생 본인들이 인지하는 귀속 계층(중류층 67.9%; 중상류층 17.7%)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엌, 욕실 등의 주거설비와 방의 크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환경 특성 및 주거과밀 특성은 통학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13>과 <표 14> 참조). 주거설비 수준에서 통학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대학생이 있는 우리 나라 가정의 주택설비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주택에 냉수와 온수가 모두 공급되며(98.5%), 부엌에 입식작업대가 설치되어 있고(97.6%) 바닥 마감재는 마루(38.7%)와 합성수지재(33.2%)가 많고, 난방연료는 가

스(48.6%), 경유(45.8%), 심야전기(4.8%)가 이용되는 등 주거설비 수준이 비슷하게 높다.

통학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주거환경 특성(<표 13> 참조)은 주택소유형태, 주거유형, 주거규모, 방의 수이며, 주거과밀 특성(<표 14> 참조)은 동거가구수, 가족이 사용하는 방수, 욕실 수, 사용 방의 동거인 수로 밝혀졌다. 원거리부모동거형은 92.2%가 자가(自家)로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84.5%)에 비해서 많으며, 주거유형이 아파트인 경우가 52.8%로서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35.7%)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규모에서도 원거리부모동거형은 30-39평인 경우(60.9%)가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46.9%)보다 많고 29평 이하는 23.2%로 근거리부모동거형(35.6%)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35.8%)보다 유의미하게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방의 수에서도 나타나 원거리부모동거형은 방 4개 이상(41.3%)이 근거리부모동거형(31.0%)나 자

(표 14) 조사대상자 전체의 통학유형별 주거과밀 실태 빈도 (%)

주거과밀특성	통학유형	원거리 부모동거형	근거리 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계
	동거가구수	4가구 이상	60 (16.2)	63 (17.6)	53 (13.7)
2 - 3가구		44 (11.9)	66 (18.4)	51 (13.2)	161 (14.4)
1 가구		267 (72.0)	229 (64.0)	282 (73.1)	778 (69.8)
계		371 (100.0)	358 (100.0)	386(100.0)	1115(100.0)
$\chi^2 = 10.47^* \quad df=4$					
가족사용방수	2개 이하	37 (9.9)	50 (13.9)	95 (24.9)	182 (16.3)
	3 개	235 (63.0)	241 (67.1)	213 (55.2)	689 (61.6)
	4개 이상	101 (27.1)	68 (18.9)	78 (20.2)	247 (22.1)
	계	373 (100.0)	359(100.0)	386(100.0)	1118(100.0)
	$\chi^2 = 37.86^{***} \quad df=4$				
욕실 수	1 개	187 (50.5)	202 (56.4)	242 (63.0)	631 (56.7)
	2개 이상	183 (49.5)	156 (43.6)	142 (37.0)	481 (43.3)
	계	370 (100.0)	358(100.0)	384(100.0)	1112(100.0)
	$\chi^2 = 11.98^{**} \quad df=2$				
사용 방의 동거인수	2인 이상	73 (19.6)	87 (24.1)	118 (30.6)	278 (24.8)
	1 인	299 (80.4)	274 (75.9)	268 (69.4)	841 (75.2)
	계	372 (100.0)	361(100.0)	386 (100.0)	1119(100.0)
	$\chi^2 = 12.32^{**} \quad df=2$				

*p< .05 ; **p< .01 ; ***p< .001

취·하숙·기숙사 거주형(33.6%)에 비해서 많은 반면에 2개 이하는 4.3%로 근거리 부모동거형(7.8%)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14.2%)보다 적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세 통학유형 중에서 원거리 부모동거형의 주거환경 수준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의 순이라고 정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통학유형 결정에 있어서 주거환경이 유의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통학거리가 먼 대학생 중에서 부모의 집이 자가가 아니거나 주거규모가 작거나 방수가 부족한 경우에 원거리부모동거유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부모동거형 중에서 원거리 부모동거형의 주거환경 수준이 근거리부모동거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가 재학하는 대학이 충청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원거리부모동거형의 집이 서울 또는 서울 근교에 소재하고 근거리부모동거형의 집이 대학이

있는 충청지역에 소재하게 됨으로써 생긴 지역간 차이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측된다.

통학유형별 차이를 언급하기 전에 조사대상자 전체의 주거과밀 실태를 보면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주택에 1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69.8%로 가장 많기는 하나 4가구 이상 동거(15.8%)와 2-3가구 동거(14.4%)가 30% 이상으로 나타나 대학생들 자녀를 둔 중류 또는 중상류가 정에서도 1주택 1가구 거주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과밀 실태는 방 4개 이상이 전체의 35.3%(<표 13> 참조)이지만 방 4개 이상을 가족이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22.1%로 적으며, 방 2개 이하가 8.8%이지만 실제로 방을 2개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는 16.3%로 2배나 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또, 사용하는 방의 동거인이 2인 이상인 경우가 24.8%로 밝혀져 주거의 설비수준이 높은 것에 비해서 공간사용에 있어서는 과밀한 상태로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학유형별 주거과밀 실태의 차이(<표 14> 참조)를 보면, 근거리부모동거형이 1주택 1가구 사용(64.0%)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적고 2-3가구 또는 4가구 이상 동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이 실제 사용하는 방수에서도 통학유형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원거리부모동거형은 방을 4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거리 부모동거형은 3개 사용,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은 2개 이하 사용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많다. 이와 같은 차이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욕실의 수나 사용하는 방의 동거인 수에도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주거과밀 실태와 대학생의 통학유형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이 사용하는 방 또는 욕실의 수가 적거나 사용하는 방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만족도에서는 통학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조사대상자 중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2%로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한 편이라는 경우(16.6%)의 3배가 넘고 보통이 31.2%로 나타났다. 이로써 주거환경 실태나 주거과밀 실태에서의 통학유형별 차이 즉, 객관적인 주거생활 실태에서의 차이가 주관적인 척도라 할 수 있는 주거만족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의 주거생활 실태

세 가지 통학유형인 원거리부모동거형,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중에서 부모의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통학하는 유형인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에 속하는 대학생의 주거생활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다가구주택(29.3%)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연립/다세대주택(20.4%), 단독주택(16.2%), 기숙사(15.2%), 아파트(14.9%)의 순이었다. 기숙사의 비율이 15%로 낮다는 사실은 대학 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율이 얼마나 낮은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기숙사 자체의 수용인원 제한에 기인한 것이거나, 대학생들이 제반 여건 때문에 기숙사를 선호하지 않는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이유이든지 간에 이러한

현실은 건전한 대학문화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또는 부모의 정서적 불안감이나 경제적 부담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사료된다. 더구나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1, 2학년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숙사 시설의 공급확대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숙사 생활을 통해 대학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동거가구 수는 기숙사를 포함한 경우 10가구 이상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5-9가구, 2-4가구, 1가구 등이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20-25%) 있었다. 사용공간의 규모를 보면, 4-5평이 34.0%, 6-7평이 24.0%, 8-9평이 14.5%로 부모의 집에서 사용하는 방의 규모보다 크다. 그러나, 사용하는 방의 동거인의 수에서 1인 사용이 부모집은 75.2%이고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은 47.4%이며, 2인 이상은 부모집이 24.8%인데 비해서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은 2인 34.8%, 3인 이상 17.8%로 밝혀짐으로써 자취·하숙·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집보다 과밀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거만족도에서 만족하라는 경우는 부모집에 대한 결과와 비슷하고(51.0%) 주거불만족이 조금 많았는데(21.2%) 이와 같이 불만족이 적은 이유는 자취, 하숙, 기숙사가 단기간의 거주장소라는 사실로 인해서 구체적인 주거불만족을 형성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설비 수준을 보면, 난방연료는 경유(57.0%)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가스(28.8%), 심야전기(14.2%)의 순이고 연탄은 전혀 없었다. 여기에서 경유와 심야전기의 이용률이 부모집에 비해서 높고 가스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이 발견되는데, 이는 도시가스의 공급이 서울이나 그 근교에 비해서 저조한 탓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냉온수 설비는 97% 정도, 부엌의 입식작업대는 95% 이상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욕실에 욕조, 세면대, 샤워가 갖추어진 경우가 17.5%이라든지 화장실에 양변기가 설치된 경우가 58.9%이며, 화장실(48.4%)이나 욕실(46.2%)을 동거인 또는 동거가구와 공동

<표 15>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의 주거환경 실태

주 거 환 경 특 성		빈 도 (%)
주 택 유 형	기 숙 사	58 (15.2)
	다가구주택	112 (29.3)
	연립/다세대주택	78 (20.4)
	아 파 트	57 (14.9)
	단독주택	62 (16.2)
	기 타	13 (3.9)
	계	382(100.0)
건물의 동거 가구수	10 가구 이상*	131 (34.7)
	5 - 9 가구	77 (20.4)
	2 - 4 가구	93 (24.6)
	1 가구	77 (20.4)
	계	378(100.0)
사용 공간의 규모	3 평 이하	52 (13.7)
	4 - 5 평	129 (34.0)
	6 - 7 평	91 (24.0)
	8 - 9 평	55 (14.5)
	10평 이상	52 (13.7)
	계	379(100.0)
사용 공간의 동거인	3인 이상	68 (17.8)
	2 인	133 (34.8)
	1 인	181 (47.4)
	계	382(100.0)
화장실 사용	공동사용	184 (48.4)
	단독사용	196 (51.6)
	계	380(100.0)
욕실 사용	공동사용	174 (46.2)
	단독사용	203 (53.8)
	계	377(100.0)
주거 만족도	불만족하다	81 (21.2)
	보통이다	106 (27.7)
	만족하다	195 (51.0)
	계	382(100.0)

*기숙사를 포함한 숫자임.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50%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서 공간사용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대학생들에 대한 만족

대학생들의 통학유형이 대학생활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16> 참조). 먼저 통학만족도에 있어서는 원거리부모동거형이 가장 불만을 표시한 반면 자취·하숙·기숙사의

경우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학소요시간, 차를 갈아타는 번거로움, 통학경비, 시간적 제약, 그에 따른 신체적 피로 등이 통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인다. 학업성취목구에 있어서는 원거리부모동거형과 근거리부모동거형보다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의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지 않는데서 오는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도를 보면 원거리부모동거형이 낮고 다른 두 유형이 높

〈표 16〉 통학유형별 대학생활 만족도

변 수	통학유형	원거리부모동거형	근거리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F값
	평균				
대학만족도	평균	2.87	3.34	3.61	52.89***
	DMR	c	b	a	
학업성취욕구	평균	3.16	3.10	3.37	8.41***
	DMR	b	b	a	
대학생활만족도	평균	2.91	3.11	3.14	7.45***
	DMR	b	a	a	
학교이동희망	평균	2.98	2.69	2.60	9.15***
	DMR	a	b	b	

*** $p < .001$

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대학생들의 통학유형이 대학생활에서의 생활만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원거리부모동거형의 경우 만족 정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다.

이러한 제 측면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앞으로 다른 학교로 이동할 것을 희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원거리부모동거형이 이동을 더 희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대학의 발전 및 학생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입안에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지방대학의 대학문화를 정착하고 육성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시간구조에서는 원거리부모동거형이 근거리부모동거형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과는 달랐다. 원거리부모동거형의 경우 하루의 시작인 아침기상시간, 등교시각이 1시간 정도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를 떠나는 시각도 빠른 편이며, 통학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신체적인 피로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거리부모동거형과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의 경우 통학소요시간이 각각 55분, 25분 정도이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원거리부모동거형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수강신청 시에도 원거리부모동거형은 수강내용이 우선시 되기보다

는 정해놓은 등교일에 수강내용을 맞추는 반면 다른 두 유형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우선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생활에서는 원거리부모동거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문화·오락·스포츠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며,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의 성 의식에서는 세 집단 모두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실제 성교 경험에서는 근거리부모동거형이 비교적 적게 경험하였다. 가족관계에서는 근거리부모동거형이 부모와의 의사결정동의, 갈등감소의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원만함을 보였다.

금전 자원과 소비지출 실태에서는 원거리부모동거형이 용돈과 기타 용돈을 가장 많이 획득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그리고 근거리부모동거형의 순이었다. 소비지출은 원거리부모동거형은 교통비가 가장 많았으며,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은 식비와 광열·수도비가 가장 많으며 경제적 압박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실태와 관련하여 원거리 부모동거형의 거주지 주거설비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근거리 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의 순이었고, 주거 과밀실태에서는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가장 열악하였다. 또한 자취나 하숙 하는 학생들은 주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만족을 보면, 자취·하

숙·기숙사 거주형이 통학만족도, 학업성취육구, 대학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원거리부모동거형이 통학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아 결국 학교이동희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원거리부모동거형은 통학소요시간이 과도하게 많아 수강 및 교내에서의 과외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교통비 지출 또한 많았다.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은 주거환경실태와 소비지출 측면에서 가장 열악하였으나 학교생활시간이 비교적 여유롭고 학교와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와의 관계도 가장 원만하게 나타났다. 한편 근거리부모동거형은 성행동 경험이 가장 적었으나 부모와의 의사결정동의와 갈등감소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을 토대로 지방대학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거리 통학생들의 높은 통학소요시간, 통학피로도는 자연스럽게 낮은 대학생활만족도, 높은 학교이동희망도 등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또한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이 비록 주거환경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는 하나 대학생시기를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감으로써 대학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학교나 그 주변의 주거형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학생들에 대한 부모들의 성적 문란함에 대한 우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기숙사를 확충한다거나 기숙사 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한 식구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질 높은 주거시설의 설립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추진은 지방대학 학생유치와 관련하여 학교 당국 및 지역사회에서도 깊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둘째, 원거리 통학생들이 배차시간에 맞추어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나 수업일수 및 요일을 설정한다는 것은 통학시간에 따라 대학생활이 제약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는 대학생활 운영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므로 대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 학업성취를 이루게 하려면 통학의 제약을 보다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지방대학에서 볼 수

있는 대학과 수도권 지역간을 운행하는 통학버스 운영에 있어서 사업자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차횟수를 늘린다든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위의 두 가지 방안에 대한 보조적인 형태로서 잠시의 취침이 가능한 간이휴게실 운영을 통하여 수업이 늦게 끝나거나 학과 일을 늦게 한 경우에 가끔 학교의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해야 하는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역 유학하는 원거리 통학유형 집단은 지방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집단보다 대학에 대한 정체감이나 소속의식이 약하고 학교이동희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소재대학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예를 들어 도서관 시설이나 문화시설의 미비)도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인 안목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 특성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 경제에 기반을 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정책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지원보다는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방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의 발전을 위한 시설투자 재정 확보 측면에서 서울소재의 대학에 비해 현격히 부족하며(이현정, 1996) 이는 곧 지방대학의 열등한 교육여건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취, 하숙 혹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그러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자취나 하숙을 하는 대학생은 생활의 엄격한 통제와 단체생활로 인한 시간 사용의 제약, 그리고 경제적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들의 생활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문화영역을 생활시간구조, 개인 및 가족생활, 소비생활, 주거생활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통학유형, 원거리부모동거형, 근거리 부모동거형, 자취·하숙·기숙사 거주형

참고 문헌

- 국무총리기획조정실(1979). 청소년백서-세계 아동의 해.
- 김대년·홍형욱(1994).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주기 유형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9), 45-57.
- 김의숙 외(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 노월애(1991). 일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Ⅱ.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심영섭(1998). 지방대학 대학촌의 학생주거의 실태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3), 103-112.
- 안옥희·김순경(1985). 사례분석으로 본 여대생의 주거경험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6(2), 213-223.
- 안옥희·임소연·권오정(1997). 대구권 대학기숙사의 시설현황 및 거주자의 사용실태. 한국주거학회지, 8(3), 119-129.
-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1996). 재학생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연구. 미 출판된 논문.
- 윤재용·신혜정(1997). 대구지역 대학생의 주거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3) 131-139.
- 이기춘 외(1997). 대한가정학회지 35(6), 290-299.
- 이상률 역(1992).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 _____ 역(1996). 문화와 소비. 문예출판사.
- 이정수(1984). 대학생의 생활행동의 시간적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2(1), 187-202.
- 이현청(1996). 학생소비자 시대의 대학. 한양대학교 출판원.
- 장병림(1980).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 장성준(1992). 수도권대학 신규캠퍼스 학생주거와 대학촌 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7).
- 장순복·최연순·김혜숙(1992). 미혼 근로여성의 성문제 분석. 최신의학, 35(8), 103-112.
- 정동철(1978). 성: 사회적 문제. 대한불임학회지, 5(1), 33-36.
- 조용하(1996). 문화이론과 문화연구의 과제, 대학생과 문화의 이해. pp. 65-81,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차승은·한경혜(1999). 청년기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 및 분거 경험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31-151.
- 청소년대책위원회편(1984). 청소년백서.
-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방송공사(1996). 1995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 Cole, L.(1959). Psychology of Adolescence, (5th ed.). NY: Holt Rimehart & Winston.
-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 Juster, F. Tomas & Frank P. Stafford(1985). Time, Goods, and Well-Being, Survey Research Cente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 The Univ. of Michigan.
- Morris E. W. & M. Winter(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John Wiley and Sons.
- Rokeach, M.(1968).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Bass.
- Tylor, E.(1924). Primitive Culture. NY: Brent